

# 조기영어학습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

이 기 석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 〈 차 례 〉

- |             |                    |
|-------------|--------------------|
| 1. 서론       | 3.2 강세박자언어와 음절박자언어 |
| 2. 문제의 제기   | 3.3 기능어와 내용어       |
| 3. 구어영어의 특성 | 4. 결론              |
| 3.1 듣기와 말하기 |                    |

## 1. 서론

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학습이 금년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왔던 영어의 조기학습에 관한 찬·반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조기영어학습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더 큰 관건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조기 영어교육<sup>1)</sup>에 있어서 음성학적 접근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언어학적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문제의 제기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영어를 6년 내지 10년<sup>2)</sup>을 배워도 미국인

---

1) 여기서 조기영어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즉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영어학습인 preschool 영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지칭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 사이에도 학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다만 사춘기 이전에 영어학습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두 시기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어가 혹시 세계 어느 나라 말 보다도 한국어와 가장 다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교육정책 및 여건이 열악해서 그럴까?' 등등의 의구심들이다. 필자는 매년 이미 6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 들어온 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구어영어(spoken English)를 가르치고 있다. 강의 맨 첫시간에 교재를 소개하고 둘째 시간을 들어가면 어쩐지 학생들이 교재에 대해서 실망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대학에 들어왔는데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유치한 교재를 쓰다니! 정도의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기가 끝나고 그들이 받는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괴리가 생기는가? 학생들의 교재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영어를 공부해왔던대로 눈으로 판단한데 반하여 이 과목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귀와 입으로 하는 영어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습의 네가지 기능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눈다. 이를 크게 둘로 나누면 듣기와 말하기가 구어(spoken language)에 해당되고, 읽기와 쓰기는 문어(written language)에 해당된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6-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어, 그 중에서도 특히 읽기(=문장해독능력)에 치중해 왔으며, 광범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language of wider communication)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대학 1학년 학생들은 사실상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설불리 배운 발음이 구어영어 학습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까지 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어영어를 포함한 이들 대학생들조차도 그 수준은 초등학교, 어쩌면 그 아래 유치원생, 또는 그 보다도 더 아래의 유아기에 해당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비록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

2) 6년 내지 1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 영어학습기간이 6년이 되고 대학까지 나오면 10년이 되기 때문이다.

지 못한 상태에서도 정부는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학습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질적인 영어문제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3년 앞당겨 시작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며, 오히려 기존의 문제를 3년 앞당겨 짚어지우는 격이 될지도 모르다는 우려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구어영어의 본질 혹은 특질을 음성학적 입장에서 밝혀봄으로써 우리의 조기영어학습정책에 반영시켜보고자 한다.

### 3. 구어영어의 특성

#### 3.1 듣기와 말하기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구어영어는 듣기와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기관 중 귀와 입으로 하는 영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논리 이전에 감각이 지배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문법에서 말하는 주어니 동사니 목적어니 하면서 따져봐야 되는 영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변형생성문법의 나무그림이나 문태규문법의 논리부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모두 말(=언어)에 관한 것이지 말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구어 영어는 말 그대로 소리가 매개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영어이다.

그러면 듣기와 말하기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 듣기가 먼저인가 말하기가 먼저인가? 학습평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하기가 보다 더 직접적이고 표면적이라면 듣기는 간접적이고 내면적이다. 따라서 영어학습에서 말하기를 듣기보다 더 중요시하고 먼저 시작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실은 듣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어린아이의 언어습득과정을 살펴보자. 정상적인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제 1언어를 자동적으로 배운다. 이 때 결코 말하기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사실 어린아이는 생후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마를 중심으로해서 주변사람들

의 말을 수없이 많이 듣는다. 이 1년 간의 기간을 온전히 듣기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구어영어학습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1년간 아이 엄마는 아이의 언어 능력을 점수로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듣기 훈련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 소리의 고저, 장단, 리듬, 강세 등등에 관해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약 6개월 정도 되면 비언어적 소리, 즉 웅알이를 시작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음절의 개념도 파악하기 시작한다(Gruber: 1973). 또 이 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엄마의 태도에서도 중요한 교사의 역할모델을 얻어낼 수 있음을 본다. 즉 어떤 엄마도 이 듣기학습기간 중에 아이가 빨리 못알아 듣고 못따라 한다고 해서 안달하지 않는다. 무한한 인내심을 토대로해서 계속 음성적 자극을 주며, 심지어 틀려도 괜찮고 오히려 이때 엄마의 언어적 눈높이를 아이수준으로 낮추고 엄마의 언어(mothers' speech)<sup>3)</sup>, 즉 motherese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까지한다(Fernald & Kuhl: 280).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막 시작한 우리의 초등영어학습의 모델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먼저 적어도 초기학습 1년간은 현재 중학교에서 하는 영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문법적 지식을 가르치려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어니 동사니, 또는 3인칭단수니 복수니, 능동태니 수동태니하는 접근을 일체하지 말고 다만 아이들에게 영어자체만 노출시켜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ESL 교사가 물론 있어야 하고 카세트 테이프와 영어방송, 비디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는 틀리고 맞고하는 것이 없고 그저 듣고 흉내내고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후천적 또는 인위적 motherese 기간을 온전하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언어소통

3) Fernald & Kuhl(1987)에 의하면 아동은 성인의(adult-directed) 언어 보다는 아동의(infant-directed) 언어를 더 선호한다. 엄마의 언어는 바로 이 아동의 언어 수준에 맞춘 언어로서 특히 억양(intonation)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을 위한 언어로서의 영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듣지않고 말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귀를 먼저 뚫고 입을 열어야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영국의 음성학자 Ashby의 논문(1997:26)에서 다음을 인용해 본다.

- (1) In the child's learning of its first language, perception ability develops way ahead of production ability. Parents talk to their children from the moment they are born, but do not expect very much back from the child for the first year or two. This is very different from what happens when students begin on a second language in school or college. Often, they will be expected to speak, even to construct sentences, from the beginning. In my view this is a serious mistake, because it means that incorrect pronunciation habits may be learned right from the beginning.

둘째로 제시하고자하는 것은 필자가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이다. 필자에게는 각각 12살과 9살인 지혜와 은혜 두 딸이 있다. 이 아이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비디오를 보게하였다. 물론 엄마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했다. 이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제 1 언어인 한국어를 습득해가고 있었으며 동시에 영어를 계속 듣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듣고 있는지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비디오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이들의 특성은 같은 비디오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보기를 좋아했다. 이점은 성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성인들의 경우 비디오의 내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본 것에 대한 흥미를 곧 잃지만 어린이들은 내용보다는 시각적, 청각적 감각을 자극해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지혜와 은혜는 각각 9살과 6살 때 1년간 미국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지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다녔고 은혜는 유치원 1학기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녔다. 따라서 지혜는 ESL 교육을 1년간 받았고 은혜는 6개월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처음 6개월 동안은 전혀 영어로 말을 하지 못했다(또는 안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있었던 일, 예를 들면 다른 아이가 자기에게 욕을 했는지 선생님이 칭찬해주었다든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말하기를 유보한 채로 듣기연습만을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 6개월이 지나자 은혜와 지혜는 서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가? 즉 입이 열린 것이었다. 그러면서 1년이 될 무렵에는 미국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고 받으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관찰은 다시 한 번 언어습득의 순서, 특히 구어영어의 습득에서는 듣기가 반드시 말하기 보다 선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언컨데, 이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말(speech)의 인지(perception)와 생성(production)은 구별되며, 말의 생성에서 작용하는 여러가지 변수들도 인지, 즉 듣기를 온전하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Ashby(1997:26)의 다음과 같은 논지는 타당하다.

- (2) We know from measurements and experiments that people differ in the precise ways they use their tongues, lips, jaws and vocal folds in forming particular sounds. But providing the output sounds right, none of this variation matters.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oo, that talkers listen to themselves to monitor their own output. Interfering with auditory feedback can have a big effect on the speed, loudness, and fluency of a talker's output. What this means is that a talker is not just going through a set of speech-production movements, but instead trying to match a series of sound targets.

결론적으로 듣기 없는 말하기는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영어의 습득이 학습목표인 한에서는 듣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듣기가 말하기보다 더욱 중요한 학습영역이 되어야 한다.

### 3.2 강세박자언어와 음절박자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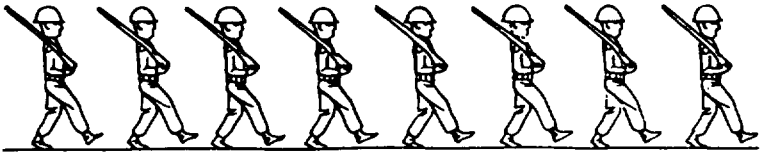
앞에서 우리는 영어학습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듣기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영어의 경우 이 듣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구어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발음의 문제인데 이 두 언어 사이에는 분절음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강세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의 초분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영문과 음성학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조음음성학 분야였으며 여기서도 특히 분절음의 차이에 대한 비교학습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음과 모음의 분절음 날개에 대한 공부 및 연습은 구어 영어를 실제로 가능케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어의 분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분절음에 앞서 초분절음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제1언어를 습득할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다. 최근 아동언어습득 이론에 의하면 영어를 제1언어로 하는 아이의 경우 초분절음의 하나인 강세의 습득을 분절음의 습득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성조어에 있어서 아이들은 성조의 습득을 완료할 무렵에도 여전히 분절음의 습득에서는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umecck:1980). 이것은 강세와 성조에서 뿐만 아니라 초분절음에 속하는 음의 높이(pitch), 억양(intonation)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논의의 초점을 영어의 강세에 국한해서 전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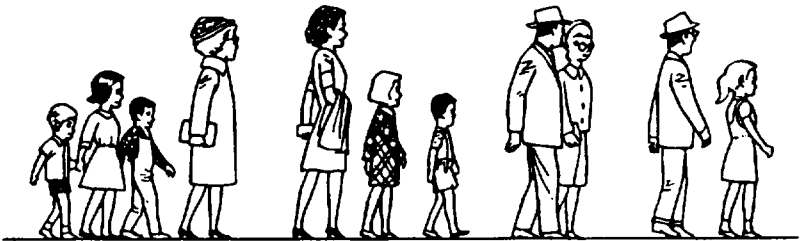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음절박자언어(syllable-timed

language)인데 반하여 영어는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이다. Catford(1977)에 의하면 언어(speech)는 언어의 기본적 리듬단위가 되는 음보(feet), 즉 발화시동력(initiator power)의 균일한 폭발로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경우 강세와 상관없이 매 음절마다 하나의 발화시동폭발이 생기는데 반해서 영어의 경우에는 각각의 발화시동폭발이 강세음절에 해당되며, 강세음절간의 시간적 간격이 대체로 균일하다. 음절박자언어와 강세박자언어의 뚜렷한 대조를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Prator & Robinett(1985)의 다음과 같은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

(3)



(4)



(3)은 음절박자언어의 리듬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치도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같은 크기와 힘을 갖고 있다. 반면에 (4)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와 같은 강세박자언어의 경우는 리듬박자가 개인단위가 아니고 가족단위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의 수와는 상관없이 한 가족이 하나의 강세박자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 다시 말하면 강세



박자의 언어에서는 주어진 어느 발화에서 강세박자의 수만 같으면 음절의 수와 상관없이 같은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Prator & Robinett(1985)이 인용하고 있는 Tennyson의 시 2행을 재인용해본다.

(5) "Bréak, bréak, bréak,  
On thy cóld gray stónes, O Séa!"

(5)에서 첫행은 3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 둘째 행은 7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행은 강음절 수에 있어서는 각각 3개씩으로 차이가 없다. 이 두행은 음절수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5)의 둘째행에서는 강세를 받는 'cold'와 'stones', 그리고 'Sea'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약화되는 부분은 토박이가 아닌 경우에 당연히 잘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영어는 한국어와 근본적으로 리듬을 달리하고 있다. 이 영어의 리듬 감각을 익히지 아니한다면 약화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기가막힌 문법이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조기영어교육과 관련해서 도입되고 있는 찬팅(chanting)과 래핑(rapping)을 이용한 학습방법도 바로 영어의 이러한 리듬 감각을 익히기 위한 방법이라 하겠다.

### 3.3 기능어와 내용어

앞에서 언급한 영어의 강세는 기능어와 내용어에 대한 구분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단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을 내용어라고 한다면 의미는 없으면서 문법적 기능만을 갖는 단어를 기능어라고 한다. Prator & Robinett(1985)에 의하면 영어의 기능어는 관사와 전치사,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지시대명사, 의문사 등이 있다. 강세와 관련해서는 내용어가 문장강세를 받는 반면에 기능어는 문장강세를 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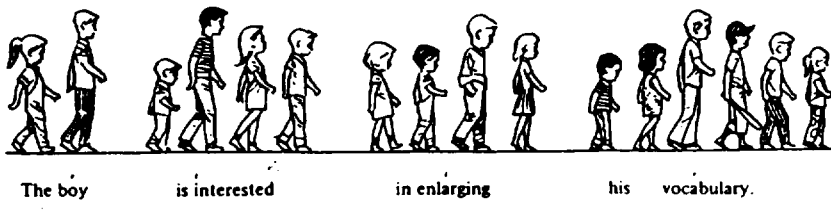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학교 영어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어는 문법위주의 읽기(=영어 해독)가 주를 이루어 온 결과 내용어는 어휘력으로 대치하고 사실상 문법의 핵심을 기능어에 대한 이해에 두어왔다. 따라서 앞 장에서 지적한 바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영어에서는 기능어의 강제약화로 인해 거의 무시되고 있는 부분인 바, 우리가 6 - 10년간 해온 것은 바로 이 부분, 즉 기능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의 축적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Prator & Robinett : 27).

(6) The boy is interested in enlarging his vocabulary

기존의 문법위주의 학습에서, 특히 이 문장과 관련한 영어의 지식을 묻고자하는 문제를 전제로 한다면 제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전치사 'in'을 고려할 것이다. 즉 위의 문장 (6)에서 'interested'라는 단어 뒤에 올 것으로 그 어떠한---예를 들어 'at', 'on', 'to', 'for' --- 것도 아니고 다름아닌 'in' 이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구어영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전치사 'in'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문장을 영어의 문장강세로 비유해서 그려놓은 Prator & Robinett의 다음을 보자.

(7)



(7)에서 'in'은 두 번째 문장강세와 세 번째 문장강세 사이의 비강세음절 5개 중 하나를 차지한다. 이에 반하여 (6)의 첫째 문장강

세와 둘째 문장강세 사이에는 비강세 음절이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강세박자언어의 특성인 등시성(isochronism)을 고려할 때 'in'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하며, 실제 발음상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 즉 문법에서는 대단히 돋보이는 부분이 구어영어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다음의 선택의문문(alternative question)을 살펴보자.

- (8) a. coffee or tea?  
 b. paper or plastic?  
 c. up or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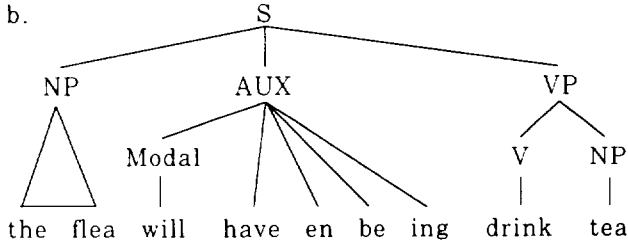
(8)의 세 예문에서는 선택의문문에서 요구되는 억양(intonation) 부분을 제외한 문장의 모든 다른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기능어인 접속사 'or'가 생략되어도 억양만 남아있으면 실제로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8a)의 문장은 비행기안에서 스텐디스가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수없이 내뱉는 말일 수 있다. 이 때 누구나 이 문장이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라는 선택의문문의 꼬리 부분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전체 문장일지라도 영어가 요구하는 강세박자와 억양을 갖추지 않으면 의사소통에서는 실패를 하게 된다. 반면에 이 긴 문장을 단순히 (8a)처럼 축약을 해도 강세와 억양만 갖추면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8b)의 문장은 슈퍼마켓 같은데서 돈계산하면서 종업원이 묻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8c)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고 받는 대화일 수가 있다.<sup>4)</sup>

그러면 이번에는 변형문법적인 문장분석이 구어영어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살펴보기로 하자. 변형문법의 나무그림에서는 NP와 VP 사이에 AUX가 있다. 그런데 이 AUX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인지에 관해서 다음의 간단한 문장의 구절구조 나무그림을 보자

4) (8)의 세 문장이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은 각각 여기서 설정한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 가능한 상황 중에서 어느 한 예만을 들었을 뿐이다.

(Akmajian &amp; Heny: 115).

(9) a. The flea will have been drinking tea.



통사적인 관점에서는 (9b)의 분석이 뛰어나다.<sup>5)</sup> 특히 AUX가 관할하고 있는 서법조동사와 완료시제, 그리고 진행형 등이 구성하고 있는 조그만 성분들이 NP와 VP가 관할하는 다른 성분들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소리를 매개체로 하는 구어영어에서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즉 위의 문장에서 AUX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요소는 앞에서 구분했던 기능어에 불과하고 내용어는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은 기능어덩어리 부분이다. 위의 문장에서 강세를 받는 부분은 NP에서 'flea'와 VP의 'drink', 'tea'의 세 군데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세가 있는 'drink'와 'tea'사이에 비강세음절이 하나(=ing)인 반면에 'flea'와 'drink' 사이에서는 AUX의 관할하에서 세 개의 비강세음절이 있다. 따라서 영어의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 이 부분의 발음이 빨라지게 되며 상당한 발음의 압축이 일어난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AUX의 모든 요소에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한다면 영어의 리듬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어민에게 이해되기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구어영어는 구어 영어대로 가르치고 학습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구어 영어를 문법으로써, 또는 통사론으로써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

5) Akmajian & Heny는 AUX의 구절구조(phrase structure)를 Aux--->(Modal) (have en) (be ing) 로 나타내고 Affix Hopping이라는 규칙으로 접사인 -en 과 -ing를 각각 바로 오른쪽의 동사에 붙인다. 그 결과로 (9a)의 문장이 된다.

다.

이는 아동의 언어 습득과정을 봐도 알 수 있다. Goodluck(1991)에 의하면 “The skunk was black”이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변형문법의 주어-동사도치규칙으로써 “Was the skunk black?”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어순은 그대로 둔채 억양만 가지고 의문문을 만든다. 즉 이 문장을 다음의 억양으로 표현한다.

- (10) — — — — /  
The skunk was black?

이는 Goodluck이 지적하는 바대로 아동은 어떤 통사적인 지식에 앞서서 음성적 습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기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접근해야할 영역은 음성학 분야이며, 음성학 중에서도 강세나 억양을 포함하는 초분절음에 대한 접근이 분절음보다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 론

이 논문은 언어학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대신 우리나라의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기영어학습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습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구어영어가 갖는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에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해야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본다면 구어영어를 듣기와 말하기, 즉 소리를 매개로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습목표가 되어야하며, 여기서 학습의 초기 어느 일정한 기간에는 말하기에 앞서 집중적으로 듣기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강세박자언어이므로 분절음에 대한 학습에 앞서서 초분절음이 갖는 리듬감각에 대한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기능과 내용이 통사론에서는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구어영어학습에서는 기능어

의 기능이 약화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금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학습에서는 이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만일 이 조기영어학습이 현재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문법중심의 학습의 단순한 복사판이 되고, 다만 그 시기만을 3년 앞당긴 것이 된다면 구어영어라는 목적에서 볼 때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Akmajian, A.C. & F. Heny(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 Ashby, M.(1997) Ear-Training: developing analytic listening skills for English. English Pronunciation and listening, the 3rd PSK Conference on Phonetic Science.
- Catford, J. C.(1977) Fundamental Problems in Phonetics.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Press.
- Clumeck, H.(1980) The Acquisition of Tone. Child Phonology. Vol. 1 Production.
- Fernald, A(1985) Four-Month-Old Infants prefer to Listen to Motheres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8, 181-195.
- Fernald, A. & P. Kuhl(1987) Acoustic Determinants of Infant Preference for Motherese Speec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0, 279-293.
- Gimson, A. C.(1980)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 Goodluck, H.(1991) Language Acquisi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USA.

- Gruber, J. S.(1973) Playing with Distinctive Features in the Babbling of Infants. In Ferguson and Slobin(originally published 1968).
- Ladefoged, P.(1993) A Course in Phonetics, 3rd ed. Harcourt, Brace, Jovanovich.
- Lass, R.(1984) Phonology: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 Cambridge.
- Prator, C. H. & B. W. Robinett(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4th ed.